

지역 소식통

정읍시, 5일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감사 돌입

정읍시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고,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결산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나서기 위해 추진된다. 결산감사위원은 제2회 회계감사위원회는 제2회 회계감사위원회를 통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총 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살펴보고,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결산 감사가 종료되면 5월 31일까지 결산 감사의견서를 첨부해 시의회에 승인요청해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된다.

시의회에서 승인된 2023회계연도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영성과가 시민에게 공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2024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활발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평생교육 인프라에서 소외되는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평생교육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적성 파악과 사회참여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공공배달업 내

지역 소식 배달 배너 구축

정읍시는 시장 소식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공공배달업 '위메프오' 내에 '정읍 소식 배달' 배너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배달업에 들어가 상단에 위치한 '정읍 소식 배달' 배너를 누르면 정읍 날씨 등 생활 정보는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정읍형 공공배달업 '위메프오'는 지난해 5월 출범해 현재까지 배달 주문 10만 건, 매출액 25억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월 소비자 할인 혜택으로 배달료 최대 2,000원 할인 쿠폰과 전통시장권에서는 배달료 최대 4,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해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한우씨수소 선발 '쾌거'

신림면 중우축산 김문석 대표 한우 1두 선발

전국 최초... 지역 한우 브랜드 품질 향상 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한우 농가에서 한우 후보씨수소 1두가 선발됐다. 민간 농가의 한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것은 전국최초 사례로, 고창군 한우 브랜드의 품질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림면 중우축

산 김문석 대표가 키우는 한우 1두가 전국 최초로 민간 한우 후보씨수소로 선발되었다.

수퍼한우를 키워낸 김문석 대표는 고창군 '청춘한우 사업단'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저탄소 한우 생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축산물품질



고창군 신림면 중우축산 김문석 대표가 키우는 한우 1두가 전국 최초로 민간 한우 후보씨수소로 선발됐다.

평가원에서 처음 시행한 저탄소 축산물(한우) 농장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간 후보씨수소는 농경력계지주 한우개량사업소·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등 국가 기관에서 생산·관리되어 왔다. 씨수소 선발은 1년에 2번 진행되고, 올 상반기 심사두수 449두중 단 36두만 선정됐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이번군 농가의 씨수소 배출은 지역 한우농가의 자긍심이 커지는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기존 축산법의 정액처리업이 완화되면서 후보씨수소를 보유한 농가는 인허가를 받아 한우 정액의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한우 우량 정액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 관내 농가에 정액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후보씨수소의 후대 검정을 통한 보증 씨수소 선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고창군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후보씨수소 선발을 통해 고창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유전체 분석 및 우량 정액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한우 개량으로 추가적인 후보씨수소 및 보증씨수소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액 등 처리업체 개설을 통해 관내 한우 농가에 우수한 후보씨수소 정액이 공급된다면 고창 한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최고 품질 한우 육성 추진

시, 총 7개 사업 16억3220만원 투입... 농가소득 향상 기대

정읍시 전국 최대 규모의 한우 사육두수에 걸맞는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한우 분야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한우 품질개선 지원 △자가 인공수정 농가 육성 △안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친자 확인검사 지원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16억3,220만원을 투입한다.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및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사업은 최신 기술인 한우의 유전체 정보분석 활용으로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를 향상시켜 우량한 우는 집중 육성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한우는 조기 도태를 유도해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농가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선별해 송아지 생산을 막고, 비육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난소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혈통 좋은 암소 등록 및 선형심사를 실시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 우량 송아지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해 미세날 블러, 사료첨가제 등 보조제를 지원하는 품질개선 지원사업과 한우 농가의 자가 인공수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귀속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2023년도 결산법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인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청 제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30일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가 신설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매달 '청렴+서로 존중' 문화 캠페인 전개

권익현 군수, 반부패 청렴 실천

홍보물 배부 등 전 직원 협력 도모

부안군은 2일 개최한 4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 청렴한 데이(Day)+서로 존중의 날' 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매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열린 공감의 날은 군청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군은 열린 공감의 날 개최일을 캠페인 날짜로 지정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월 간부 공무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은 청백리(淸正)추진단장인 권익현 부안군수가 앞장서 청렴 리더로서 솔선수범해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부안군지부장이 함께한 전 직원의 협력을 도모했다.

캠페인은 청렴 부안을 위한 '품수수 금지', '적극행정' 및 상호존중 관련 '갑질 근절', '웃으며 인사', '존댓말 사용'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활용



부안군은 2일 개최한 4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청백리(淸白吏)추진단장인 권익현 부안군수가 앞장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청 청탁 사례 웹툰과 갑질 예방 포스터, 성희롱 예방 홍보물을 배부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권익현 군수는 "사자성이 '상행하효(上行下效)'는 뒷사람이 하는 일을 아

랫사람이 본받는다'는 뜻"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청렴 의지를 표명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창의성·전문성 바탕 군민 중심 행정 주문

4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서... 부안마실축제 추진방향 설명·이균형 전북 CBS 보도제작국장 특강

권익현 부안군수는 관행적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일 열린 4월 중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2024년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2분기가 시작됐다"며 "중앙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4월 중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해 5월 말까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로 모든 부서에서는 해당 부처별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사업들의 논리개발과 대응방안을 찾아 내년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군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11회 부안마실축제는 장소와 기간이 변경된 만큼 홍보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기존과 차별화된 구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한 부안군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4월 열린공감의 날에서는 이영



권익현 부안군수는 2일 열린 4월 중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관행적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민 부안마실축제 총감독이 제11회 부안마실축제의 개요와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이균형 전북 CBS 보도제작국장의 '언론(인)의 생태계 이해 및 홍보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특강이 실

시됐다. 권익현 군수는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남았다. 전 직원께서는 공직기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펼쳐진 2024 정읍 벚꽃축제가 17만명 이상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은 벚꽃축제 개막식.

'벚꽃 흩날리는 봄날의 향연'

2024 정읍 벚꽃축제 성료... 17만명 이상 방문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펼쳐진 2024 정읍 벚꽃축제가 17만명 이상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는 당초 지난해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벚꽃이 예상보다 늦게 피어 시민과 관광객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루 연장한 2일에 마무리됐다.

축제 첫날 비가 와 아쉬운 축제의 서막을 올렸지만, 둘째 날 이후부터 차차 봄날의 기운을 되찾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정읍 홍보사 3인방 김용민, 김태연, 방서희를 비롯해 김성환, 배일호 등 유명 가수가 펼치는 개막식 축하공

연은 화려한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간식과 체험 등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먹거리 부스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학수 시장은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 아쉬운 감이 있었으나, 주말에 벚꽃이 많이 개화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정읍만의 특색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석정벚꽃터널 야간 경관조명 일주일 연장 운영

올해 벚꽃 최절정기를 맞아 고창군 이 석정벚꽃터널의 야간 경관조명을 일주일 연장 운영한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던 석정지구 벚꽃길이 만개하면서 최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설레나 봄, 제2회

고창벚꽃축제(3월29~31일)'의 야간 경관 조명을 조형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벚꽃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야간경관 조명'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과 다양한 포토존이 가득한 밤까지도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고창=김영식 기자